

‘도깨비 장마’



10일 전북 군산시 일대에 시간당 100mm가 넘는 폭우가 쏟아지면서 중앙로 일대 도로가 물에 잠겨 있다. <군산시 제공>

전북·충청 200mm 넘는 호우 쏟아져 5명 숨지고 1명 실종 큰 피해
낮엔 폭염 밤엔 폭우 ... 광주·전남 언제 덮칠 지 몰라 철저 대비를

올해 장맛비가 심야에 집중적으로 쏟아지면서 광주·전남에도 야간 물폭탄이 쏟아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지난 9일 밤부터 10일 새벽 중부지방과 전북지역에 시간당 최대 100mm를 넘는 폭우가 쏟아져 큰 피해를 낸 장맛비가 우리 지역을 덮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다.

광주지방기상청 등에 따르면 지난 9일 밤부터 10일 새벽까지 충청·전남 지역에서 200mm가 넘는 비가 내리면서 5명이 숨지고 1명이 실종되는 등 인명피해가 발생했다. 추가 피해도 이어지고 있다.

도로나 집이 침수되고 산사태가 발생하는 등 피해가 곳곳에서 발생했다. 특히 짧은 시간에 많은 비가 내리면서 피해를 키웠다.

그동안 우리나라 장마전선은 남북으로 얇고 동서로 긴 띠를 형성해 지속적으로 비를 뿌리는 전형적인 패턴을 보였다.

하지만 최근에는 단시간 좁은 지역에 집중호우를 쏟아내고 있다.

전문가들은 지구온난화의 영향으로 분석하고 있다. 가파르게 오르면 온도도 대기에 수증기가 더 많이 유입된데다 북태평양 고기압이 확장해 장마전선이 강화됐다는 것이다.

이번 장마는 동남아시아 일대 아열대 기후에서

보이는 ‘스콜’을 연상케 하고 있지만, 달갑지 않은 현상을 낳고 있다.

스콜은 더운 낮에 가열된 뜨거운 공기가 상승해 국지성 호우를 뿌리는 패턴을 반복하지만, 우리나라의 장맛비는 야간에 물리고 있는 것이다.

이 때문에 ‘도깨비 비’, ‘홍길동 비’, ‘스텔스 비’, ‘야행성 비’ 등 유독 많은 별칭을 낳고 있다.

전문가들은 점점 빈번하게 밤 시간대 강한 비가 집중될 수 있다고 지적한다.

단시간에 집중해서 쏟아지는 기습폭우가 잦아지면서 도로·주택 침수와 토사유출 산사태 피해가 광주·전남에도 언제든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지난 2022년 8월 6일부터 사흘간 600mm에 육박하는 기록적인 폭우로 광주·전남에 ‘역대급 수해’가 발생했다. 폭우에서 비롯된 산사태, 하천 범람 등으로 10명이 숨지고 1명이 실종됐고, 3000명이 넘는 이재민이 발생했다.

8월 7일 오후 8시 30분께 집중호우로 인해 곡성에서 안전조치가 미흡한 도로공사 현장에서 산사태가 발생해 토사가 마을 주택 4채를 덮쳐 5명이 숨지기도 했다.

지역민들은 “언제 우리지역에도 물폭탄이 쏟아질지 모르겠다”며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다.

특히 오라가라하는 날씨에 기상청 예보가 빛나

가는 사례가 빈번해 지역민들의 우려는 더욱 커지고 있다.

기상청은 밤에 비가 집중되는 현상을 다르게 설명한다.

밤에는 태양열이 차단되고 고기압의 영향을 적게 받아 해상에 있던 비구름대가 비교적 쉽게 내륙으로 들어올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더해 남쪽에서 불어오는 뜨겁고 습한 ‘하층제트기류’ 역시 난류의 영향이 적은 밤 시간대 내륙으로 도달해 장맛비의 강도를 강하게 한다.

다만 올해 중국쪽에서 발생한 저기압이 장마전선과 겹치는 현상이 과거보다 빈번하게 발생하면서 폭염과 폭우가 반복되는 번덕스러운 날씨를 보이고 있다고 분석했다.

저기압이 장마전선을 끌어올리면서 폭우가 쏟아졌다가 저기압이 동해상으로 빠져나가면 높아진 습도와 함께 체감온도가 올라가 폭염이 온다는 설명이다.

이병철 광주지방기상청 예보관은 “사람들이 잠을 자는 새벽시간대 침수나 산사태가 발생할 경우 더 큰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수시로 예보를 확인하고 대비하는 게 필요하겠다”며 “기상청이 올해부터 제공하는 호우 긴급재난문자도 참고해달라”고 말했다. 이어 “10일 오후 장마전선이 제주도 남쪽 해상으로 내려가 장맛비가 소강상태를 보이고 있지만 광주·전남 지역은 12일 밤부터 다시 장마전선의 영향을 받겠다”고 예보했다.

/장혜원 기자 hey1@kwangju.co.kr

이재명, 민주당 대표 출마 선언 “먹사니즘이 유일한 이데올로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사진) 전 대표는 10일 8·18 전당대회에서 대표직 연임에 도전하겠다고 선언했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선언문이 사실상의 ‘대선 출마 선언문’이라는 평가까지 나왔다.

이 전 대표는 이날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회견을 열어 “다시 뛰는 대한민국을 만드는 일은 제1정당, 수권정당인 민주당의 책임이다”며 “영국은 14년만에 정권이 교체됐고 프랑스도 좌파연대가 총선에서 승리했다. 우리도 새 시대로 나아가기 위한 중대한 갈림길에 놓여있다”고 지적했다.

또 “단언컨대 먹고사는 문제만큼 중요한 것은 없다”며 “‘먹사니즘’(먹고사는 민생문제)이 유일한 이데올로기가 돼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속 성장이 ‘먹사니즘’의 핵심”이라며 “이를 위해 인공지능(AI) 등 과학기술 분야를 중심으로 성장동력 확보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전 대표는 “기업과 국가가 혁신을 위해 2인 3각으로 움직여야 한다. 안타깝게도 우리는 AI인재들이 해외로 빠져나가고 있는데, 기술인재 양성에 더 과감히 투자해야 한다”며 “재생에너지의 생산과 공급시스템을 갖춰 ‘에너지 고속도로’, 즉 인공지능 기반의 지능형 전력망을 건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신기술을 통한 생산성 향상이 노동시간 단축으로 이어져야 한다. 알하지 않는 자는 먹지도 말라는 말은 과학기술 시대의 현실을 외



면한 것”이라며 “먼저 ‘주 4.5일제’를 자리잡게 하고 2035년까지는 ‘주 4일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외교·안보 이슈에 대해서도 “외교의 목적은 국익이다. 실용적 접근이 중요하다”며 “상대를 억지하는 강한 군사력 과시도 필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평화구축 노력이다”고 주장했다.

이번 당 대표 선거의 슬로건을 ‘국민 옆에 이재명, 다시 뛰는 대한민국’으로 정한 것도 이와 같은 맥락이라 할 수 있다.

총선에서 민주당의 단독 과반의석 확보 등 야권이 압승한 것은 결국 민심이 정부보다는 국회, 여당보다 제1야당에 기대를 걸고 있다는 게 이 전 대표의 인식이다.

이 전 대표를 상징하는 ‘기분사회’가 출마선언문에 등장한 것도 결국은 국정운영 청사진을 갖춘 지도자로서의 면모를 재차 각인시키려는 의지로 풀이된다.

반면, 대통령 탄핵 등을 두고 여야가 극한 대치를 이어가는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과 여권을 향한 공세적 발언은 없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광주시, 자치구와 함께 쓰레기 소각장 건립 나서나

1순위 후보지 오늘 공동 브리핑

광주시와 자치구(구정)가 주민 반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원회수 시설(쓰레기 소각장) 건립(본보 7월 10일자 1면) 방안 마련에 공동 대응하기로 했다.

광주 5개 자치구들은 그동안 생활 폐기물 처리는 자신들의 고유 사무임에도, 광주시에 해당 업무를 위임한 뒤 반대 주민의 눈치만 보는 등 비협조적인 행정 행태를 반복해 지역사회의 비난을 받아왔다.

10일 광주시에 따르면 광주 자원회수 시설 입지 선정위원회는 이날 광주시청에서 회의를 열어 기존 공모 절차를 거쳐 후보지로 압축된 서구 매월동, 북구 장동동, 광산구 삼계동을 대상으로 적합성 등을 논의했다. 위원회는 그동안 장소별별 사회적 영향, 경제성, 입지 요건 등을 분석해 최적의 장소를 검토해왔다. 그러나 3개 지역 모두 지역 주민의 반발이 워낙 거센 탓에 최종 후보지를 선정하더라도 사업 추진이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 등이 제기됐고, 위원회는 결국 이날 발표 예정이었던 최종 1순위 후보지 및 회의의 결과도 공개하지 않았다.

대신 강기정 광주시장과 5개 구청장은 11일 오전 입지 선정위원회 회의의 결과와 함께 앞으로 추진 방침 등을 브리핑하기로 했다.

그동안 광주시가 주도해온 입지 선정 과정이나 개인, 법인, 단체 등이 직접 신청했던 방식에서 벗어나 광주시와 자치구가 함께 참여하는 새로운 공모 방식을 제안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 등이 나온다.

광주시와 자치구가 공동으로 선정 절차를 밟아 주민 반발을 줄이고, 수용성을 높이는 것이다.

광주시는 2030년 시행되는 생활 쓰레기 직매립 금지 조치에 대비해 총사업비 3240억원을 들여 하루 650t을 처리할 수 있는 자원회수 시설 건립을 추진 중이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사랑과 감사의 70년
믿음과 소망으로 100년
[1954~2024]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
www.kwangshin.ac.kr

주민에게 한 걸음 더, 치안 친절을 한 번 더!
주민과 함께하는 자치치안으로 도민이 행복한 안전전남을 만들어 갑니다.

지역공동체와 함께하는 사회안전망 구축
과학 치안 기반의 미래범죄예방
주민 참여 우리 동네 교통환경 개선 확대
사회적 약자 보호 활동 강화

전라남도자치경찰위원회
JeollaNamdo Police Commission